

독자에게서 온 편지



지방 독자들의 불편을 덜어 주길...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에 사는 류 정수 라고 합니다.

먼저 컴퓨터 학습의 독자로서 귀사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작년 10월부터 컴퓨터 학습과 인연을 맺어 과월호를 구입하고 이제껏 열심히 책을 보고 있습니다. 컴퓨터 퀴즈를 풀어 당첨도 되었고 CS게시판에 저의 이름도 올랐고 제가 귀사에게 입은 은혜가 크기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1월호를 읽고 새삼 느낀 점과 이제까지 생각해온 바를 편집자님께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먼저 컴퓨터가 세상을 바꾼다의 (I)로보스틱 혁명에서 기사를 읽고 좀 짧았다 하는 기분을 느꼈지만 무엇보다 미국과 일본의 전자공학 발달이나 장난감의 소개는 해외의 소식이라 흥미는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어떠한 현실을 맞고 있나, 그래서 우리 나라의 가전업체 또는 기타 연구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므로써 우리 나라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나라의 특성(미·일 경우와 같이)을 가질 수 있게 되겠는가 하는 점을 결론으로 내려 스스로 자각할 수 있게끔 하였으면

더 좋은 기사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외국의 실태를 소개만 하지 말고 우리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겠다하는 결론이 아쉬웠습니다.

이상 1월호의 기사 한편에 대해 느낀 점을 좀 적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더라도 저의 뜻이 충분히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월호의 센서로보트(자동차) 12월(86년)의 멜로디카드, 좋은 기사이면서 위에 말씀드린 사항중에 국민의 관심(컴퓨터 학습 애독자 뿐이지만)을 일으킬 좋은 공작교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생각은, 이것은 한낱 서울 거주 학생만의 기사라 생각했습니다.

마이크로스위치, IC, 등등의 여러 부품을 구입하기 위해선 지방의 독자는 서울 친척이나 아니면 방학에 어렵게 가는 서울 길에 구입합니다. 지방에서 편지로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데 무엇을 사고 싶습니다 하고 연락하면 어느 가게 대리점에서 IC 1개 저항 2개등 이렇게 날개로 파는데 소포로 부쳐주고 하겠습니까? 또 편지를 해도 소식이 없고요. 저는 전주에 살고 있지만 도시라 생각해도 IC

마이크로스위치 릴레이 등을 구입한다는건 거의 불가능할뿐더러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도시라 자처하는 전주에서도 이럴진대 군, 읍, 리 등의 독자는 어떻겠습니까?

만들고싶어 회로도를 열심히 보아도 부품이 없으니 말 그대로 "그림에 떡"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그만 제안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먼저 귀사에서 공작교실에 나오는 부품의 이름(IC의 이름등)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지난 E-DDY II 나 이번의 어드벤처에 디터 프로그램을 귀사에서 구입하듯이 매달 공작교실의 사용 부품을 Set로 또는 독자가 원하는 부품을 살수 있게(특히 지방의 독자) 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컴퓨터 학습이 S/W를 알려주고 프로그램 공부에 도움이 되는 잡지지 무슨 공작부품까지 파느냐고 반문하시겠지만 여차피 실리는 기사의 한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는 독자를 위한 컴퓨터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알찬기사 많이 써 주십시오.

전북 전주시 평화동
풍년주택 가동 109호/류 정수